

국제 수업 시수를 통한 시사점 분석

오 은 주[†]
(경일대학교)

Examining Education Issues By Comparing Instructional Hours Across Different Countries

Eun-Joo OH[†]
(Kyungi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education issues in Korea by comparing instructional hours across countries. For accomplishing such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89 elementary schools, 94 middle schools and 42 high schools, 2010 OECD report was reviewed. Based on the research, the total number of instructional hours in elementary schools in Korea is around 610-710 hours, while the OECD average is around 760-810 hours, which is around 100-160 hours higher than that of Korea. In the case of middle schools, it is around 867 hours in Korea, while the OECD average is around 892 hours.

Key words : Instructional hours, Education issues, Instructional time

I. 서 론

한 국가의 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45년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시기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 그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변천사를 거쳐 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은 수준별 학습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과거 6차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 권한을 일선학교에

대폭 위임하여 국가공통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won, Min,& Choi, 2008). 그 결과 각 학교에서는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방과 후 활동 등을 활용해 학습자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 계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Kim, 2010).

학교는 교육의 범위를 주어진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개인의 소질을 계발하여 가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준비과정으로 확장하고 있다(Cho, 2007).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의 추구보다는 학벌 중심의 인사제도와 좋은 학벌이

[†] Corresponding author : 053-600-5263, eoh1@daum.net

사회적 성공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선호하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은 개인 간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루는 학습의 양과 배우는 학습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학원에 다니면서 삶에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Kim, 2009).

2012년에 발표된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1주당 평균 7시간 정도 사교육에 보내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교육비는 20조 1억 원 정도이다. 현재는 학생 1인당 약 30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선행학습, 학교수업보충, 진학준비 등을 목적으로 국영수 등 일반교과 위주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2). Yoo et al.,(1999)는 이러한 사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학교를 오래 다녀도 기본생활습관이나 기본예절조차 제대로 갖추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고 폭넓고 다양한 인간적 교류를 통하여 익혀야 할 사회성이나 봉사하는 정신을 함양하지 못하고 있어 사교육 집중 현상은 오랫동안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Kim, 2003).

이러한 사교육 의존 현상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교육의 불균형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도록 유도해 왔고 사교육에 지출 비용은 정부가 학교교육에 지출하는 수준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Lee & Kim, 2002). 또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사교육이 없는 학교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많은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사교육 집중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Kim, 2003; Kim, 2001).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이 사교육에 많은 부분의 교육량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공

교육이 학생들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교과교육에 치중된 사교육이 우리나라만큼 활성화된 나라는 드물고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공교육의 운영을 통하여 성공적인 교육시스템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대학 순위 50위권의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교과교육 중심의 사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선진국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수업시수와 핵심과목들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업시수와 OECD 참여국 중 5개 나라를 선별하여 각 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전체 수업시수와 과목별 수업시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업시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전체 교육시간과 핵심과목의 수업시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국가마다 교육과정의 체제나 분류가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각국의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원문의 사실을 그대로 인용 비교한 후 공통점 및 차이점,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교육시간 활용과 학교운영 방안, 그리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강조되어야 할 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수업시수는 다른 나라의 수업시수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 핵심 교과목 수업시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사교육 현황

우리나라 교육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사교육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PISA 평가에서 2006년 읽기 1위, 수학 4위, 과학 13위, 2007년 수학 2위, 과학 4위, 2009년 읽기 1위, 수학 1위, 과학 2위 등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업 성취 수준에도 불구하고 공교육비에 사교육비를 더한 값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학습 효율성을 비교할 때 투자한 학습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그다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정규 수업시간 외의 학습 시간의 양이 많아 성취 점수로 교육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Park, 2010; Choi et al., 2010).

201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 참여율은 총 71.7%였고 1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7시간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2). Kim(2001)는 지나친 과외교육이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교육과정의 변천을 거쳐 현재 학교에서는 재량활동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소요하고 있는 시간은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Chung, 2005). 2012년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사교육 참여교과를 살펴보면 일반교과는 초등학교 70%, 중학교 66.6%, 고등학교 51.8%로 평균 61.6%의 참여

율을 보였고, 예·체능 및 취미교양 분야는 초등학교 57.4%, 중학교는 16.1%, 고등학교는 10.4%로 평균 33.1%의 참여율을 보여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보충이나 선수학습을 하고자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Table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초등학교 84.6%, 중학교 71%, 고등학교 58.7%로 평균 71.7%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적은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2).

<Table 1> Statistics of Personal Education Fee

	Personal Education Fee Per Person(10,000won)	Participation Rate
Total	24.0	71.7%
Elementary School	24.1	84.6%
Middle School	26.2	71.0%
High School	25.9	58.7%

Source: Statistics Korea, 2012 Census of Personal Education Fee, 201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영어(8만1천원)와 수학(7만원)에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수학이 50.2%로 가장 높고 영어가 49.2%, 예체능이 33.1%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2).

수업시간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는(양승국, 2002)은 수업시간이 줄어들면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를 지배했던 공부 우선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극복하고 가족 단위의 각종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져 공부와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07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격주 5일제 수업이 시작된 이후 서울 지역의 사교육비가 17% 증가하였고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의 보호자 없이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다(Kookminilbo, 2007, Aug. 10). 정부는 수업시

간이 감소하면 문화생활이나 가족과의 여가생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수업시간이 적을수록 사교육에 보내는 시간은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Kim(2010)의 연구는 주5일수업제를 실시한 후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여가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것 이외에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사교육에 관한 연구(Kim, 2008; Kim & Han, 2008; Kim et al., 2010) 역시 방과후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사교육 참여율이 다르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수업을 대체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8; Chung et al., 2010).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부진한 과목에 대해서 개별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부족한 과목에 대해 학습량을 강화하고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이다(Kim, 2009). 국가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의 활동에 대하여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교육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최소한 배움의 시간이 부족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Lee & Kwak,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수업시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으로 나누어지며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 과정이란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Kim & Kim, 2008; Cho, 2002).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국가 전체에서 공통으로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단계별 교육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연간 최소 교육과정 이수 시간 및 교육내용을 제시해주고 지역 수준 혹은 학교 수준에서 학교실정, 학생실태, 교과의 특성, 활동 주제와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및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시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실제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있는 요강적 기준으로 현장에서의 교육과는 상당한 정도의 거리가 있다(Choi, 2005).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나라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의 역할과 책임을 지역이나 학교 수준으로 분권화하는 경향이 있다(Cho, 2007).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 역시 교과목의 획일적인 시간 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과별 주당 평균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연간 최소 수업시수만을 제시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Kwon et al., 2012).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대부분 최소 수업시수를 정하고 있는데 수업시수는 학년별로 계획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compulsory instruction) 총 수업시수를 말한다(OECD, 2012). 총 수업시수는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계획된 수업시수(planned instruction time)와 실제 수업시수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 수업시수는 모든 의무수업시수를 포함하며 학습의 양 및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의 기회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반면에 계획서 상의 수업시수는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상황에 얼마나 노출되었고 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제시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나타내주지는 않는다(OECD, 2012).

실제 수업시간은 학교의 상황, 휴강, 교사의 결근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계획서의 수업시수와 달라질 수 있어서 의무수업시수와 실제 수업시수

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12년 OECD 보고서에 제시된 2009년 조사에 의하면, 7세에서 14세까지 학생들의 총 계획된 수업시수는 6,862시간이며, 각 학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을 계산하면 1년 평균 수업시수는 857.75시간이었다. 그러나 수업시수는 상황과 교육 체계에 따라 나라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편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의 양이 많아지면 안정된 학습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어 학습 손실의 양을 줄이고 교육과정의 숙달 수준을 높이며 과도한 교육과정에 대한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수업시수가 많으면 교육비용이 증가되고 교사들에게 과도한 수업 부담을 주어 부실한 수업 경영이 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지루한 수업이 되어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Lee, 2001).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적 상황에 적합한 최소 수업시수를 결정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학습 성취도를 최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주 6일제 수업에서 5일제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수업시간의 감소를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수업의 양과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에 Choi와 Lee(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총 학습량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교육 투자 효율성을 OECD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이라서 학습의 양과 시간보다는 효율적인 교육 시간의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기종과 Kwak(2010)은 수업시간이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시간 동안 같은 수업의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행하는 공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장시간 동안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습자 스스로 충분한 공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높은 학업성취를 기

대할 수 없다. 게다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업 활동과 학업성취도의 평가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고 있어서 수업 외 시간 동안 학습활동을 하지 않으면 학습성취도를 높이기 어렵다. 수업 외 학습활동이란 학교 수업을 떠나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나 가정, 도서관 등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행해지는 모든 활동이다(Lee & Kwak, 2010).

반면에 OECD 보고서(2012)에 의하면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은 학교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므로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수업시간의 양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운영 방식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효율적인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학습자원을 찾아 제공하고 시간의 사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Kim, 2010).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문헌분석이 실시되었다. OECD 국가의 평균 수업 시수 및 과목별 수업시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 OECD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개별 국가의 교육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국가 수준 및 주 수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초등학교 189개교, 중학교 94개교, 고등학교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 참여 학교의 선정은 전국 초등학교 6,296개교, 전국 중학교 3,120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1,400개교 중에서 유

층표집에 의한 동수배법을 통해 추출된 표집대상 3%에 해당하는 학교였다.

2. 연구 도구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제 실시하고 있는 전체수업시수와 교과별 시수를 설문지가 사용되었고 설문지는 교육과정 전문가 3인에 의하여 제작되었고 각 단위 학교별 교사에 의해 타당성과 유용성이 검토되었다. 다른 나라의 수업시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OECD 보고서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번역한 나라별 교육과정 문헌이 사용되었다.

3. 자료 분석

교육과정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하여 총 수업시수와 주당 수업시수로 분석되었고 다른 나라의 자료는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전체 수업시수와 주당 수업시수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연구 결과

가. 우리나라 연간 수업시수와 학교급별 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분석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수업 일수를 분석해 본 결과 모든 교육기관이 205일로 국가 수준 수업일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분을 1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 644시간, 중학교 884시간, 고등학교 1,055시간 순으로 학교급별로 약 200시간의 차이가 났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수업 시수는 411시간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주당 수업시간은 초등학교는 18.9시간, 중학교는 26시간, 고등학교는 31시간으로 학교급별로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씩 차이가 나타났다. 1일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3.1시간, 중학교 4.3시간, 고등학

교 5.2시간으로 학교급별로 1시간씩의 차이를 보였다.

각 학년별 수업 시수를 분석해 본 결과 상급과정으로 진학할수록 수업시수가 증가하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수업시수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시간 격차는 초등학교 1학년이 560시간, 고등학교 3학년이 1,055시간으로 연간 495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학교급별 격차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의 경우 연간 156시간의 차이를 보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년별 격차 없이 비교적 동일한 수업 시수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Table 2> Instruction Time by School Levels

School		Instruction Time (Unit: 60 min.)		
Levels	Grade	Year	Week (34 weeks)	Day
Elementary School	1	560.73	16.49	2.74
	2	573	16.85	2.80
	3	648.73	19.08	3.16
	4	650.8	19.14	3.17
	5	716	21.06	3.49
	6	716	21.06	3.49
Middle School	1	884.55	26.02	4.31
	2	884.99	26.03	4.32
	3	884.44	26.01	4.31
High School	1	1,050.38	30.89	5.12
	2	1,061.31	31.22	5.18
	3	1,055.18	31.03	5.15

<Table 3> Instruction Time by School Levels (Unit: 60mins)

School Levels	Instruction Time		
	Year	Week	Day
Elementary School	644.2	18.9	3.1
Middle School	884.7	26	4.3
High School	1,055.60	31	5.2

과목별 수업 시수를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국어의 수업시수가 154.33시간으로 전체 수업의 27%

국제 수업 시수를 통한 시사점 분석

로 가장 높았고 즐거운생활(128.49시간)이 22%, 산수(85.87시간)가 15% 순으로 높았다. 3학년에서 6학년의 경우 교과에 할당된 시간은 국어(137.8시간)20%, 산수(89시간)13%, 체육(66.5시간)이 10% 순으로 높았고 도덕(22.6시간)에 할당된 시간이 3%로 가장 낮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과 고

학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등 주로 도덕 및 생활 교육에 초점을 맞추던 교육과정이 교과교육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재량시간이 약 6시간 감소하였으며 특별활동 시간이 연간 25.13시간에서 43시간으로 약 15시간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Table 4> Average Instruction Time of Subject Areas of the Elementary Schools (Unit: 60min.)

1st & 2nd grade	1st graders	Korean	Math	Ethical Life	Pleasant Life	Wise Life		S.A	Korea	Ethics	S.S	Math	Science	Domestics	Gym	Music	Art	F.L	S.A	S.A
Week	1.3	3.765	2.095	1.05	1.575	3.135	1.23	0.61	3.4	0.6	1.6	2.2	1.6	1.1	1.6	1.2	1.1	0.8	1.1	1.0
Year	53.39	154.33	85.87	43.035	64.44	128.49	50.4	25.13	137.8	22.6	66.6	89.0	66.7	45.3	66.5	50.4	44.8	33.9	44.9	43.0

중학교의 교과별 수업시수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어(127.16시간)가 전체 교과의 14%로 가장 높았고, 수학(102시간)이 12%, 과학(76.84시간)이 8.7%, 영어와 사회(각각 76.84)가 8.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초등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미술 시간이 연간 16.58시간 감소하였고 교과 재량 시간이 58.14시간으로 초등학교에 비하여 약 8시간 증가하였다. 재량활동

은 1주일에 3시간 정도로 교과 재량에 2시간, 창의 재량 1시간 정도 활용하고 있었다. 교과 재량의 경우 교과목을 표기한 학교 18개 학교 중 15개 학교가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을 하고 있었고 종교나 미술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다. 특별활동의 경우 자치, 적응, 행사, 계발, 봉사 활동에 다양하게 시간을 할당하고 있었고 학교마다 시간 분배에 대한 편차가 심하였다.

<Table 5> Average Instruction Time of Subject Areas of the Middle Schools (Unit: 60min.)

Subject	Korean	Ethics	S.S	Math	Science	Tech.	Gym	Music	Art	English	Exams.	Subjects Hours	Creative Activities	Special Activities
Week	3.74	1.50	2.26	3.00	2.27	1.50	2.25	1.49	0.76	2.26	1.19	1.70	0.68	1.67
Year	127.16	51	76.84	102	77.18	51	76.5	50.66	25.84	76.84	40.46	58.14	21.76	56.6

고등학교 공통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113.22시간)이 전체 교육과정의 10%로 가장 높았고 과학(85시간)이 8%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나머지 교과목의 수업시수는 주요 교과목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특이한 점은 재량시간이 148.92시간으로 전체 교육과정의 14.8%를 차지하였고 중학교 교육과정에 비하여 연간 90.78시간, 즉 주당 2.68시간이 증가하였고 특별활동 시간 역시 연간, 27.88, 주당 0.78시간이 증가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총 42개 학교 중 교과 재량 교과목을 표기한 30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주로 과학(21개 학교), 영어(18개 학교), 국사(13개 학교), 사회(9개 학교), 직업과 진로(9개 학교), 국어(7개 학교)의 교과목을 교과 재량으로 보충하고 있었다. 창의 재량은 대부분 범교과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보건의, 논술, 독서지도 등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다. 특별활동 시간은 1주일에 2시간 정도 할당되어 있었으나 각 학교의 교육과정 문서에는 구체적인 활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Table 6> 1st Grade: High School (Unit: 60min)

	Korean	Ethics	S.S	History	Math	Science	Tech.	Gym	Art	Music	English	Activities	Special Activities
Week	3.33	0.83	2.50	1.67	3.33	2.50	2.50	1.67	0.83	0.83	3.33	4.38	1.46
Year	113.22	28.22	85	56.78	113.22	85	85	56.78	28.22	28.22	113.22	148.92	49.62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의 경우 외국어 교과목(243.27)이 23%로 가장 높았고 사회계열 교과목(215.05)이 20%, 국어(180.37)이 17%를 차지하였고 특별활동(70.72시간)도 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연계의 경우 과학(240.55시간)이 23%로 가장 높았고 외국어(214.54시간)가 20%, 수학(206.38시간)

이 19% 순으로 높았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교육과정의 경우 외국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고 인문계는 사회 과목에 자연계는 과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특별활동 시간을 비교한 결과 인문계열에 할당된 특별활동 시간이 자연계열보다 14시간이 많았다.

<Table 7> 2nd & 3rd Grades of the High School (Unit: 60min.)

Area		Korean	Ethics	S.S	Math	Science	Tech.	Gym	Music	Art	F.L	Chinese	Culture	Physical education	Speical Activities
Humanities	W	5.31	2.07	6.33	3.55	2.84	2.10	1.63	1.78	2.00	7.16	2.06	1.63	1.94	2.08
	Y	180.37	70.21	215.05	120.7	96.56	71.4	55.42	60.35	68	243.27	69.87	55.25	65.96	70.72
Natura science	W	4.62	1.67	2.57	6.07	7.075	1.79	1.625	1.805	2.085	6.31	2.28	1.695	2	1.67
	Y	156.91	56.78	87.38	206.38	240.55	60.86	55.25	61.37	70.89	214.54	77.52	57.63	68	56.78

나. OCED 국가의 평균 수업시수

OECD 국가의 평균 수업시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2년 보고서에 제시된 37개국의 7세에서 15세 사이 학생들의 평균 의무교육시간과 계획서상의 수업시간을 분석하였다. OECD 국가 7-8세 학생들의 평균 의무교육시간이 774시간이었고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상의 평균 수업시수는 790시간이었다. 의무수업시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9-11세 학생들은 7-8세 학생들보다 평균 31시간 정도 많은 821시간, 12-14세의 학생들은 9-11세 학생들보다 78시간 더 많은 899시간이었다. 계획서 상의 시수를 살펴보면 9-11세 학생들은 7-8세 학생들보다 48시간 더 많은 838시간의 수업이 할당되어 있었고 12-14세 학생들은

9-11세 학생들보다 84시간 수업시간이 더 많은 922시간이 할당되어 있었으며 15세의 학생들에게는 948시간이 할당되어 있었다.

OECD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의무수업시수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업시수보다 연 100시간 정도 낮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실제 수업시수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업시수와 OECD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의무수업시수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이 수업시수에 포함되어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제외한 수업시수와 비교한다면 실제 교과교육에 사용되는 수업시수는 OECD 평균보

다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Table 8> Average Compulsory and Planned Instruction Time of Ages 7-14 between OECD Countries and Korea
(Unit: 60min.)

OECD Reports		Ages 7-8	Ages 9-11	Ages 12-14	Age 15
OECD countries	Compulsory	774	821	899	920
	Planned	790	838	922	948
Korea	Compulsory	612	703	859	1020
	Planned	612	703	859	N/A
Real Instruction Time of Korea		566.86	671.84	828.51	884.44

OECD 보고서에 나타난 의무교육 중 핵심 교과목과 교과목별 수업량은 연령과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핵심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세의 경우 읽기, 쓰기, 문학(30%), 수학(18%), 과학(6%), 사회(6%), 외국어(2%), 예술(12%)로 총 교과목 양의 74%를 차지하고 있었다. 9-11세의 경우 읽기, 쓰기, 문학(22%), 수학(16%), 과학(8%), 사회(9%), 외국어(8%), 예술(11%)로 역시 총 교과목 양의 7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읽기와 쓰기는 9-11세의 학생들에게 치중되지만 각 나라별로 편차가 심한 편이었다. 호주의 경우 핵심 교과목이 의무교육과정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프랑스, 멕시코, 뉴질랜드에서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외국어에 투자하는 시

간에서도 편차가 심한 편이었는데 룩셈부르크의 경우 외국어 교육을 1%만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체코, 스페인, 스웨덴, 이스라엘, 슬로바니아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의무교육 시수로 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보고서에 제시된 문항은 19%, 수학 13% 과학 10%, 외국어 5%로 과학을 제외한 주요 과목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12-14세 학생들의 경우 평균 40% 이상을 읽기, 쓰기, 문학(16%), 수학(13%), 과학(12%)의 3과목에 치중하고 있었다. 또한, 9-11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의 교육과정이 외국어(13%)와 사회(13%)에 치중되고 있었고 다소 적은 양의 시간이 예술(8%)에 할당되어 있었다. 핵심교과목 중 가장 편차가 큰 과목은 읽기와 쓰기인데 호주의 경우 10%를 의무시수로 정해놓은 반면에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28%를 의무시수로 정해놓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어는 13% 수학, 과학은 11%로 약 34%의 교육과정이 주요 교과목에 사용되고 있었다. 설문조사로부터 분석된 자료는 OECD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자료와 약 1% 정도 오차를 보였고 OECD 평균보다 핵심주요과목에 할당된 수업시간이 전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읽기, 쓰기, 문학, 외국어에 할당된 수업시수가 OECD 평균에 비하여 3%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Percentage of Core Subject Areas in the Curriculum

Subject Areas	Ages 7-8			Ages 9-11			Ages 12-14		
	OECD Averages	Korea		OECD Averages	Korea		OECD Averages	Korea	
		OECD Report	Real Life		OECD Report	Real Life		OECD Report	Real Life
Reading, Writing	30%	26%	18.4%	22%	19%	18.4%	16%	13%	13%
Math	18%	15%	12%	16%	13%	12%	13%	11%	12%
Science	6%	6%	9.2%	8%	10%	9.2%	12%	11%	10%
Social Studies	6%	6%	9.2%	9%	10%	9.2%	12%	10%	9%
Foreign Languages	2%	2%	6%	8%	5%	6%	13%	10%	9%
Art	12%	7%	12.5%	11%	13%	12.5%	8%	8%	7%

다. 국가별 교육과정 문서분석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프랑스의 5 개국을 선별하여 교육과정 문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먼저 각 나라의 수업 일수와 수업시수를 전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모든 학년의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여 다음 <Table 10>에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뉴욕의 주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은 격주로 5일과 6일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분석을 위하여 주 5일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각 나라별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연간 수업 일수 및 수업 주수가 205 일 51.25주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과 중국이 170 일 35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연간 수업 시수는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1057.5시간과 1,020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의 수업 시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당 수업 시수 및 1일 수업 시수는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Instruction Time per Week and Year of Different Countries

	Yearly Instruction Days	Yearly Instruction Week	Yearly Instruction Hours	Weekly Instruction Time	Daily Instruction Time
Korea	205	34	885.2	21.59	4.31
U.S.A	180	36	1,020	28.35	5.67
Japan	170	35	769.04	21.97	4.39
China	170	35	756.4	21.61	4.32
Aug.	200	40	854.43	21.36	4.27
France	180	36	1057.5	29.37	5.87

단위 학교별로 연간 수업 시수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수업 시수가 644.2시간으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았고 프랑스가 936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호주가 933.3, 미국이 852

시간으로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수업 시수를 나타내었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884.44시간으로 가장 낮은 수업 시수를 나타내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은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의 국가가 고등학교 수업시수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반면 한국과 프랑스는 상위 학년으로 갈수록 수업 시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 수업 시수 역시 호주의 경우 최종 학년은 26주 수업으로 상위학교나 진로의 방향에 따라 예비과정으로, 고등학교 학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실습시간을 늘려주고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수업 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Yearly Instruction Time by Schools (Unit: hour)

	Korea	U.S.A	Japan	China	Aug.	France
Elementary	644.2	852	670.88	735	933.3	936
Middle	884.44	999.87	845.83	892.5	970	1,048
High	1055.18	1,188	875	816	660	1,188

<Table 12> Instruction Time by School Levles (Unit: Hour)

	Korea	U.S.A	Japan	China	Aug.	France
Elementary	18.95	23.67	19.17	21.5	23.33	26
Middle	26.01	27.77	24.17	25.5	24.25	29.13
High	31.03	33	25	23.3	16.5	33

구체적으로 학년별 시수를 분석해 본 결과,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수업 시수가 가장 높은 반면, 일본과 중국,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교육과정에서 최종 학년의 수업 시수를 가장 낮게 책정하고 있었다.

<Table 13> Weekly Instruction Time by Grades
(Unit: hour)

Grade	Korea	U.S.A(NY)	Japan	China	Aug.	France
1	560.73	780	586.5	682.6	933.3	936
2	573	780	630	682.6	933.3	936
3	648.73	924	682.5	787.5	933.3	936
4	650.8	924	708.75	787.5	933.3	936
5	716	924	708.75	787.5	933.3	936
6	716	1,046	708.75	787.5	933.3	936
7	884.55	976.8	845.33	892.5	970	936
8	884.99	976.8	845.33	892.5	970	1,188
9	884.44	1,188	845.33	892.5	970	1,134
10	1,050.38	1,188	991.67	892.5	970	1,188
11	1,061.31	1,188	991.67	892.5	660	1,170
12	1,055.18	1,188	641.67	663	660	1,206

IV. 종합 및 결론

1. 종합

본 연구에서는 수업시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현황을 분석해 보고 OECD 자료와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중국의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전체 수업시수는 초등학교 644.2시간, 중학교 844.7시간, 고등학교 1,055.6시간으로 고등학교의 평균 수업시수가 월등하게 많았다. 전체 수업시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한 결과 초·중학교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평균 수업시수는 644.2였지만 7-11세 사이의 OECD 평균 의무수업시수는 789.5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145시간 정도가 더 많았다. 중학교도 우리나라가 884시간 정도인데 12-14세 OECD 평균은 892시간 정도로 나타나 9시간 정도가 더 많다. 선택 수업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수업 시간 수는 더욱더 벌어지게 되고 계획서상의 수업시수로 계산하면 중학교의 경우 100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5개국의 경우와 비교해본 결과 역시 우리나라의 수업일수가 205일

로 미국(180일), 일본(170일), 중국(170일), 호주(200일), 프랑스(180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연간 수업 시수는 885.2시간으로 프랑스(1,057.5시간), 미국(1,020시간)보다 적게 나타났고 일일 수업 시수는 4.31시간으로 프랑스(5.87시간), 미국(5.67시간), 일본(4.39시간), 중국(4.32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수업 시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수까지 계산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제 수업 시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수업 시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로 진급할수록 수업시수가 월등히 높아졌으나 미국과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는 중학교 수업 시수와 비슷하였고 중국과 호주는 오히려 중학교보다 수업 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수업 시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가 전체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수학, 과학, 사회의 순서였다. 영어 교과목의 비중은 초등학교에서는 5% 정도로 아주 낮았고 중학교에서는 8.7%로 사회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공통과정에서는 10.7%로 수학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핵심 교과목인 국어, 수학, 과학, 사회가 전체 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핵심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읽기, 쓰기, 문학과 수학의 실제 수업시수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았다. 아울러 OECD 보고서에 제시된 수업시수보다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실제 수업시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의무수업일수는 205일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 수업시수를 OECD 평균과 연구

참여 국가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업시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아 1일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수업시수에 포함되는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시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실제 교과목 수업시수만 비교했다면 우리나라의 실제 교육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들이 하루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적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전체 교과목에서 핵심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우리나라가 외국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록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핵심 교과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 같은 경우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PISA와 TIMSS 등의 결과에서는 학업성취도가 선진 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제시된 수치만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수업시수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교과재량에 핵심 교과목을 배치해 놓은 학교가 많아서 실제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투자하는 시간은 많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교육 현황을 보면 학교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사설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부족한 학습량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역량이 순전히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재량시간과 특별활동의 경우 학교마다 교과내용 및 시간의 분배에 대한 편차가 심한 것이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교육과정이 잘 계획되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실행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이러한 시간을 부족한 교과목 수업이나 자율학습시간으로 활용하거나 학교행사 시간으로 활용하는 학교들도 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학교 중 한 중학교의 경우 재량시간에 영화감상, 미술, 음악 감상, 헬스 등 비교과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있었고 헬스를 선택한 학생들은 교사의 참여 없이 인근의 헬스센터에 등록해 운동하도록 하고 있었다. 토요일 1교시-4교시 재량시간을 헬스장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것이다. 교사의 감독이나 가르침 없이 학생들이 운동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다. 이것은 수업시간에 학원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업시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이 도출되었다.

첫째,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실제 교과교육에 소요되는 수업시수를 늘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업일수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지만, 실제 수업시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수업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1교시가 40분이다. 40분 수업을 하고 10분 휴식한 후 다시 수업하게 되고 보통 50분 정도의 점심시간을 가진다. 총 5교시 수업이면 1시간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지게 되고, 연간 307.5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수업시수가 높은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하루 시간표를 살펴보면 1일 휴식 시간이 15분에서 30분 사이이다. 1일 30분 휴식을 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휴식시간은 85시간으로 우리나라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블록 스케줄을 사용하여 수업시간 사이에는 이동을 위한 짧은 시간 이외에는 특별한 휴식시간이 배당되어 있지 않으며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휴식시간을 줄이고 교과교육에 할당되는 시간을 늘리되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체험위주

의 다양한 교육방법의 시도가 필요하겠다.

둘째, 우리나라의 환경과 요구를 반영해야 하지만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이 수업시수로 들어가야 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하고 수업시수로 들어간다면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량활동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미비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의 연장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수업시간이 무의미하게 쓰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재량시간의 활용과 수업시간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형식적인 수업시수의 배분과 교과목 구성이 아니라 교과교육에 다루지 못하는 자신감, 가치, 탐구력 등 정의적 영역의 교육이나 자신감이나 실질적인 소질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선택 교과 영역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의 길을 결정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호주나 미국의 경우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와 연계한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거나 일정 학점을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후 대학에서 미리 학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로를 선택 한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수업시수로 인정하여 직업세계에서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시체제가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생 개인이 진학과 진로에 대한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지원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경우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까지 한 학기 정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시스템에서 대학입학이 결정되고 나면 학습에 대한 동기가 결여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과 연계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재량시간 등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의 문이 좁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효율적인 수업시간의 활용과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수업 시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교육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양적으로 어떠한지 알아보는 데 있었다. 현재 사교육 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과교육에 소요되는 수업시간이 적고 학생들이 하루 동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핵심 교과목에 대한 수업 시수의 배분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교육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수업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배웠다고 느낀다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에 만족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많은 부분을 수업 시수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여 다른 중요요소들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을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여 교육과정의 양적·질적인 영역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Chung, Kwanf-Hee (2005). Exploring the Ways of Normaliza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Systems and the Student Selection for the "High School - College Linkage" Program, KEDI, Seoul.
- Chung, Yoon-Kyung, Lee, Min-Hae, Woo, Yoen-Kyung, Bong, Mi-Mi & Kim, Sung-II (2010). Study Motivation, Study Strategies, and the Changes of Study Achievement Based on the

- Personal Education Hours, 16(2), 103~124
- Cho, Mi-Ra (2002). Curriculum of the Disc retionary Activities at the National Level, Regional Level, School Level, and the Teachers' Level,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Ewa Women's University.
- Cho, Ho-Je (2007), Analysis of the Practice of the National Level Curriculum.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Korea Teacher's College.
- Choi, Yoon-Jung (2005). Research on the Preschool Curriculum at the National Level. Preschool Education Research, 25(4), 5~31
- Choi, Ho-Sung & Lee, Ok-Yeon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udy Hours and Performance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OECD Countries, Curriculum Research, 29(1), 45~61
- Kim, Kyung-Keun(2008). Decision Factors of the Participation for the After School Activities, The 2nd Conference of the Longitude Research of Korean Education, KEDI, 505~529.
- Kim, Dae-Hyun & Kim, Seok-Woo (2011). Curriculum and Evaluation, Hakjisa, Seoul
- Kim, Seok-Woo & Han, Hong-Ryun (2008), Evaluation of the After School Activity Progras of the Middle Schools, Educational Evaluation Research, 21(1), 27-53.
- Kim, Sung-Tae(2010). Impact of the 5-day Class on the Changes of Leisure Time, Study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the Life. adopting the 5-day Class, Korean Physical Education Research, 15(1), 55~72.
- Kim, In-Sook, Byun, Jong-Im, & Cho, Soon-Ok (2010), Trends of Particiation with the After School Programs, Open Education Research, 18(4), 249~273
- Kim, In-Hee (2009). Task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for the Education Outsiders, Korean Social Welfare Policies, 17(1), 129~17.
- Kim, Jae-Choon (2010). 2009 Explor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 of 2009 Curriculum, Curriculum Research, 28(3), 57~83.
- Kim, Hyun-chul et al. (2007). Analysis of After School Programs and EBS Programs, Ministry of Education, Seoul.
- Kim, Chung-Ja (2001). 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Personal Education on the School Studies Personal Education, Adolescent Research, 8(2), 61-8
- Koonmin Ilbo(2007). Impact of the 5-day Class Policies on the Personal Education , <http://www.kookminilbo.co.kr> (Search Date: 2013. 9. 1)
- Kwon, Nak-won, et al.(2009).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Hakju Print, Seoul.
- Lee, Ki-Jong & Kwak, Soo-Ran (2010).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Study Hours impacting on the Study Achievement, Education Collection of Writings, 11(1), 43-61
- Lee, Yun-Mee, Ku, Ja-Euk, Chung, Kwanf-Hee & Kim, Ji-Won (2001). Research on Developing Social Infra-Structure Regarding the 5-day Class, KEDI, Seoul.
-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USA: OECD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Search date: 2013. 9. 1)
- Park, Soon-Chan & Shin, Hee-Kyung (2010).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OECD Countries: Analysis of Educational Fee and the Changes of Outcomes, Kyungsang Collections of Writings, 28(1), 121~138
- Statistics Korea(2012). <http://kostat.go.kr>, Costs of Personal Education, (Search Date: 2013/9.1)
- Yoo, Han-Ku, Cho, Ju-Yeon, Kim, Seong-Ho, Lee Kyung-Hwan & Park, Jae-Yoon (1999). Exploring the Improvement of Curriculum Systems preparing for the 5-day Class, Seoul Education College, Seoul.

-
- 논문접수일 : 2013년 04월 02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7월 31일
2차 - 2013년 09월 27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10일